

# 담 화 문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택시시장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도입” 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현재 우리 개인택시업계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3년부터 추진되었던 자가용 카풀영업,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등은 ‘공유경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아래 택시산업을 구(舊)산업으로 치부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조합원 모두가 하나되어 운전대 대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그 과정에서 “출·퇴근시간 명문화”, “타다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법제화시켜 업권을 지켜왔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 완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유례없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닥뜨렸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키워야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운송 플랫폼사업의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지금, 우리는 낡은 규제와 억압에 순응하며 살아온 지난 반세기를 과감히 떨쳐내고,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택시가 중심될 기회의 시점이 왔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택시 승객들은 과거의 ‘손짓’이 아닌 ‘터치’로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택시를 호출하여 이동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용자도 택시 기사도 각자의 핸드폰에 깔린 택시 앱을 통해 소통하며, 승객은 보다 편안하고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기존 택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과 택시사업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개인택시사업을 재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가올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국민에게 사랑 받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친절한 택시를 만듭시다.”**

따뜻한 인사와 목적지 확인, 부당한 승차거부 근절, 손님에게 쓸데 없는 말 걸지 않기, 조용한 차내 환경 조성 등 승객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시다.

**둘째, “안전한 택시를 만듭시다.”**

내 가족을 태웠다는 마음으로, 안전띠 착용안내, 비행기 1등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안락하고 편안한 탑승을 위해 안전운행과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셋째, “청결한 택시를 만듭시다.”**

운행 전 나의 복장을 점검해보고, 차내 온도체크, 환기 및 방향제 비치, 차내 금연 등 쾌적한 실내를 유지합시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개개인의 실천이 곧 개인택시의 힘을 키우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하시고 꼭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천개인택시조합 임·직원들은 업권 신장보호를 위하여 부제해제, 택시총량제 사수 투쟁과 타다 금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발 더 앞장서 일하며 조합원님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 . 9 . 03 .

인천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김 **승 일**



# 「택시총량 약속」 사수 투쟁에 관하여...

## 택시총량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선' 입니다

최근 연이은 택시 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9,000여 조합원님들의 2018년부터 시작된 열정적인 투쟁으로 카플(자가용 영업행위)과 불법 타다 퇴출을 성공시켰지만, 정부는 타다 퇴출을 조건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운송사업을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택시 플랫폼운송사업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총량 약속 대수와는 별개로 플랫폼사업자들에게 택시사업면허를 아무런 제약 없이 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넘쳐나는 택시를 감차해도 모자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택시 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수를 정해 플랫폼사업면허를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가 이제와서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 약속 무력화' 계획, 우리 택시업계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 택시총량이란: 기존에 지자체에서 사업면허를 허가 해준 대수 즉 자연감소분과 감차하기 전 대수

## 택시총량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령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감차비용을 오롯이 택시업계에 전가하는 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모빌리티업계 눈치를 보며 택시총량을 무시하고 또 다시 “제2의 택시 과잉공급 사태”를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 일관성 부재를 스스로 자인하는 국토교통부에 다시금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플랫폼운송사업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택시 총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령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의 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9,000여 조합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합니다!

택시 4개단체는 “국토교통부는 택시 총량 약속 이행하라” 라는 차량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부착하여 우리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